

『大畜觀書目』과 『承華樓書目』에 관한 考察*

A Study on Daechukkwan-seomok and Seunghwaru-seomok

이 정 효 (Lee, Junghyo)**

◁ 목 차 ▷

- | | |
|-------------------------|----------------------------|
| 1. 緒言 | 4. 『大畜觀書目』과 『承華樓書目』의 特徵 比較 |
| 2. 大畜觀의 建立과 『大畜觀書目』의 作成 | 5. 結 論 |
| 3. 承華樓의 建立과 『承華樓書目』의 作成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여러 사료를 통해 대축관과 승화루의 건립 목적과 건립 시기 등을 유추하고, 목록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각 목록의 체제와 기술방법의 특징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또한 수록된 자료를 분석하여 대축관에 소장된 장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두 목록의 특징을 토대로 각 서고의 기능과 수록된 도서의 주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축관은 정조 6~8년(1782~1784)에, 승화루는 정조 6~7년(1782~1783)에 건립된 것으로 모두 거의 같은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승화루는 학습과 서적 보관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면 대축관은 서적 보관의 기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목록의 목록 기술 방법을 살펴본 결과 모두 간단히 서명과 책 수 정도를 기입하여, 서고 관리의 체크리스트 정도로 활용된 것으로 보였다. 또한 각 서고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책의 주제를 보면, 두 서고 모두 문집류의 비중이 높았으며 『대축관서목』에는 『劉氏三代錄』을 비롯해 총 18종의 언해본 소설류가 포함되어 있어, 당시 궁궐 내에서도 한글 소설류가 활발히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要語: 대축관서목, 승화루서목, 대축관, 승화루, 시강원

< ABSTRACT >

In this study, found out purpose of construction and timing using various of historical records and I identified the main fuctions of each library analyze the contents of the catalog. And found out how to write the catalog.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on, compare the actual functions of the library and the amount of books contained in the library.

As a result, Daechukkuan and Seunghwaru are estimated to have been constructed between 1782 and 1784. Seunghwaru carried out function of storing books and it was the study room of the prince. On the other hand, Daechukkuan only stored books. Analysis of how to write a catalog, simply put the book of title and volumes. So presumed to be used as a checklist. And look at the theme of the book on each catalog, both libraries have many anthology, and The Daechukkuan-seomok contains a total of 18 novels written in korean, including “劉氏三代錄”, which suggests that they were widely used in royal palaces.

Key words: Daechukkuan(大畜觀), Seunghwaru(承華樓), catalog, Siangwon(侍講院), Changdeokgung palace(昌德宮)

* 본 연구는 2015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hyolee1980@korea.kr)

접수일: 2018년 2월 7일 최초심사일: 2018년 3월 4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16일
서지학연구, 제73집, 35-52,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3.35]

1. 緒言

우리나라의 서적 간행 역사와 도서관 문화 발전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한 단계 진보하였으며, 이러한 발전은 모두 궁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의 궁은 다양한 활자를 제조·생산하는 곳이 있을 뿐 아니라 서적편찬과 인쇄를 주도하는 곳이었다. 궁에서는 政事에 관계된 다양한 문헌들을 생산하였을 뿐 아니라 왕의 강학을 위한 教材 그리고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儒學書와 교육서적도 간행되었다. 또한 使行을 통해 국외의 유명서적을 수입해 옴으로써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서적들을 소장하고, 이를 복각하여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의 궁은 다양한 목적과 경로를 통해 많은 서적들을 생산·보유 하였고 각 궁에 퍼져 있는 여러 書庫들은 모두 조선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되었다. 당시 궁중 도서관은 그야말로 조선시대 학술문화의 寶庫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궁 안의 여러 서고에는 소장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소장목록이나 도서이용에 대한 기록 등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수의 조선시대 궁중도서목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양이나 종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연구가 시행된 바가 없다. 조선시대의 출판과 도서관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궁궐의 여러 서고에 소장된 개별 목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奎章閣이나 藏書閣과 같이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그 기능이 유지되어온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단일 연구¹⁾는 진행된 바 있으나, 작은 규모의 서고나 서고목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궁중에서 도서관 혹은 서고의 역할을 했던 소장처에 대한 연구²⁾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이 또한 정조대에 한정되어있으며 여러 서고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서적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조선의 많은 궁궐 가운데도 창덕궁은 가장 오랫동안 임금이 거처했던 궁궐로, 태종 5년(1405)에 두 번째로 세워졌으나, 먼저 세워진 법궁인 경복궁보다 임금이 머물기를 선호했던 궁이었다. 임진왜란으로 한양에 있는 모든 궁궐이 불타 버린 후, 창덕궁은 광해군 때 다른 궁궐에 앞서 곧바로 재건되어 조선의 대표 궁궐로 사용되었다.³⁾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창덕궁의 각처에는 많은 서고들이 존재했고, 특히 誠正閣 일원에는 아직도 몇몇 서고가 남아있다. 성정각은 세자의 교육시설로 성정각 우측의 중희당 일대는 모두 왕세자가 거처하는 동궁으로 七分書·三三窩·承華樓·大畜觀과 같은

1) 白麟, “奎章閣藏書에 對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2). ; 李杏淑, “奎章閣藏書의 構成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83). ; 南權熙, “奎章閣 西庫의 書目과 藏書 變遷 分析: 現存 書目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83). ; 강순애, “奎章閣의 圖書編撰 刊印 및 流通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0). ; 姜惠英, “朝鮮朝 正祖의 書籍 蒐集 政策에 關한 研究: 奎章閣을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1). ; 이재준, “장서각 소장 내사본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 안미경, “藏書閣 자료의 현황과 특징,” 『古典籍』 제2집(한국고전정보진흥위원회, 2006), 96-108 등.

2) 풍지혜, “정조대 궁중 서적보관처와 서적 관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3).

3) 최종덕, 『조선의 참 궁궐 창덕궁』 (서울: 놀와, 2006), 15.

서고가 현존하고 있으며, 『承華樓書目』이나 『大畜觀書目』과 같이 소장된 서적을 바탕으로 만든 소장목록이 전해지기도 한다.

특히 대축관에 소장된 서적을 바탕으로 작성된 ‘대축관서목’은 지금까지 서지학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어,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한 목록이라고 볼 수 있다. 대축관은 창덕궁의 중희당 영역에 속한 서적보관처 중 하나로 건립 시기도 확실하지 않으며, 목록의 작성 시기 또한 분명하지 못하다. 더구나 근처의 다른 서고인 승화루와 달리 도서의 이용보다는 보관의 기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승화루는 대축관과 같은 구역에 존재한 서고 가운데 하나로, 대축관과 승화루 모두 시강원에서 관리하는 서고였다. 승화루의 경우에는 도서와 서화를 함께 보관하고 목록 또한 모두를 수록하였다. 『승화루서목』에 대한 기존의 연구⁴⁾를 통해서 승화루에서는 일반도서와 함께 비도서자료인 서화류를 다량 보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반도서보다는 서화자료의 분류 방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궁궐 안에 산재된 많은 도서관 혹은 서고의 기능과 소장도서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거의 연구된 바가 없는 『대축관서목』과 『승화루서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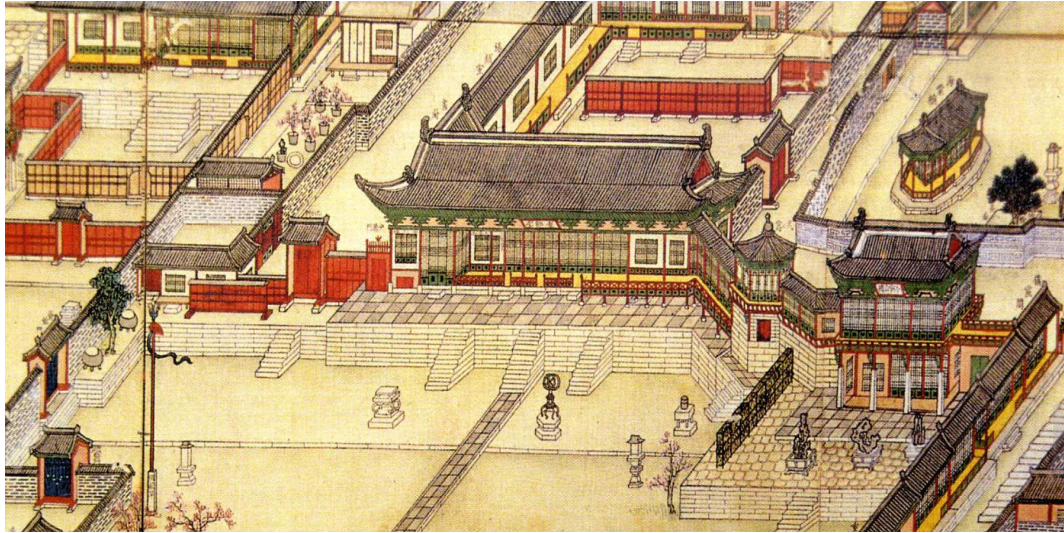
2. 大畜觀의 建立과 『大畜觀書目』의 作成

2.1 大畜觀의 建立과 機能

대축관이 소재한 창덕궁의 東宮은 왕세자의 공간으로, 지리상으로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해 동궁이라 일컬어졌다. 또한 동궁은 왕세자의 거처 공간일 뿐 아니라 왕세자를 일컫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동궁은 왕이 신하를 접견하는 正堂인 重熙堂과 독서와 강론이 이루어지는 書筵의 공간인 誠正閣, 휴식을 위한 內堂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그 중에 중희당은 세자의 여러 활동이 행해지는 중심 공간으로 중희당의 건립은 文孝世子와 관련이 있다. 정조의 장남인 문효세자는 정조 6년(1782) 10월 13일 새벽에 태어났고, 정조는 장자의 탄생을 기뻐하는 뜻으로 같은 해에 중희당을 짓고 친히 현판을 써서 달게 하였다. 그리고 장자가 3살 되던 해에 왕세자 책봉식을 거행하였다.⁵⁾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효세자는 정조 10년(1786) 6월 6일에 5세의 어린 나이에 홍역으로 경복궁 資善堂에서 홍서하고 말았다.

4) 南權熙, “承華樓書目考,” 『사회과학연구』 3호(1987).

5) 최중덕(2006).



<그림 1> 동궁의 중희당(『동궐도』中)

중희당은 면적으로 봤을 때 임금의 처소인 회정당보다도 넓었으며, 마당에는 해시계를 비롯해 測雨器, 小簡儀 등의 과학 기구들도 설치되었는데, 이 또한 세자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중희당의 건립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종년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궁궐지』에는 다음과 같이 중희당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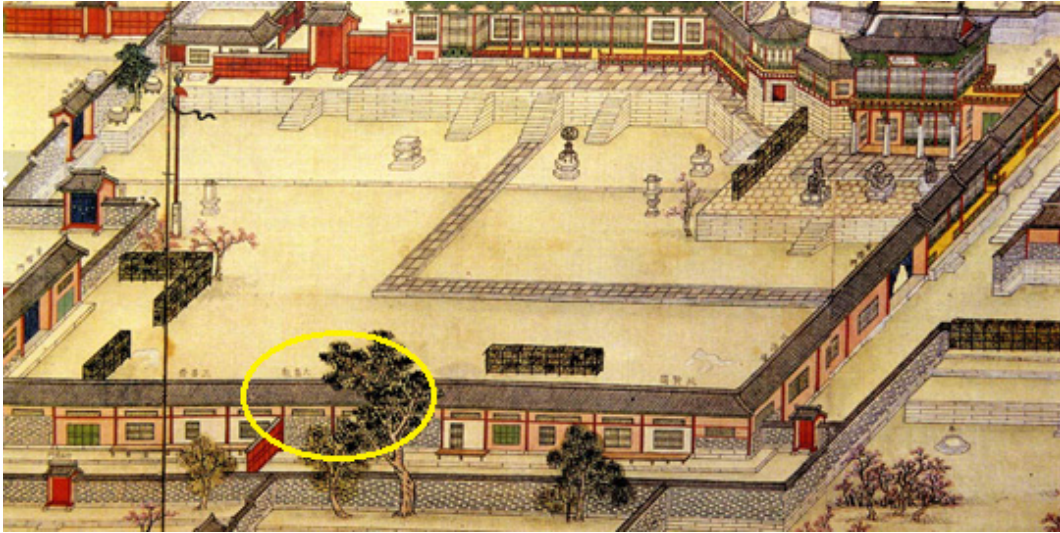
중희당은 관물헌 동쪽에 있다. 정조 6년 임인에 세웠으며, 동쪽은 重陽門이라고 하고 서쪽은 資始門이라고 한다. 堂額은 정조의 어필이다.⁶⁾

또한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중희당 관련 기사가 정조 8년(1784) 윤3월부터인 것으로 보아, 정조 6년(1782)부터 건립하여 정조 8년(1784)에 3월 이전에 건립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그림 1>에서 볼 때 중희당은 화면의 정가운데 가로로 놓인 건물이며, 중희당 오른쪽에는 육각 지붕을 한 貳口窩와 누각인 小宙舍樓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소주합루는 정조 즉위년(1776)에 세워진 “주합루”와 이름이 흡사하여, 그 기능을 임금과 관련된 서적과 그림 같은 것을 보관하는 도서 소장처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중희당의 남쪽과 동쪽, 그리고 서쪽은 ㄷ자형 행각이 둘러싸고 있는데 남행각의 동쪽부터 延賢閣, 중앙이 大畜觀, 서쪽이 三善齋이다.⁷⁾

6) 宮闕志, “重熙堂在觀物軒. 正宗六年壬寅建. 東曰重陽門 西曰資始門. 堂額正廟御筆.”

7) 정유나, “창덕궁에 나타난 매개공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立大學校, 2008).



<그림 2> 대축관(『동궐도』 中)

<그림 2>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대축관으로 대축관은 중희당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건물이 지어진 시기나 건립 목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宮闕志』에도 중희당에 이어서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없이 “大畜觀”이라고 건물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건립시기와 기능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건물이 중희당과 연결된 소주합루, 삼삼와, 칠분서 등과도 연결되어 있어 그 구조상 중희당을 건립할 시기인 정조 6~7년(1783~1784)에 함께 지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대축관의 명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周易』의 64卦 중 26번째 괘인 大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축괘의 상괘는 산(山), 하괘는 천(天)으로 만들어졌다. 주역에는 “大畜 利貞 不家食 吉利涉大川[바른 것이 이로우니 집에서 밥 먹지 않으면 길하다. 큰 내를 건넌에 이롭다]”이라 하였는데, 이 뜻을 세자의 공간과 연결 지어 보면, ‘학문과 능력을 충실히 쌓아서 세상에 나아가 그 덕을 베풀고 이로움을 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대축관은 곧 학문과 덕업을 쌓아 그 능력을 펼치는 곳으로 이름 지어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대축관은 세자의 학습과 관련이 있고, 또 서고로 이용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중희당 영역에 속하는 다른 서적보관 장소인 승화루가 서적을 보관하고 읽는 것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대축관은 단순히 중희당 영역에 필요한 서적들을 보관하는 보존의 기능만 강조된 공간이었던 듯하다.⁸⁾ 실제로 중희당 영역은 공간적으로 시강원 영역과 인접하였고, 세자의 주요활동인 강학활동이 중희당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축관을 서적보관처로 사용한

8) 풍지혜(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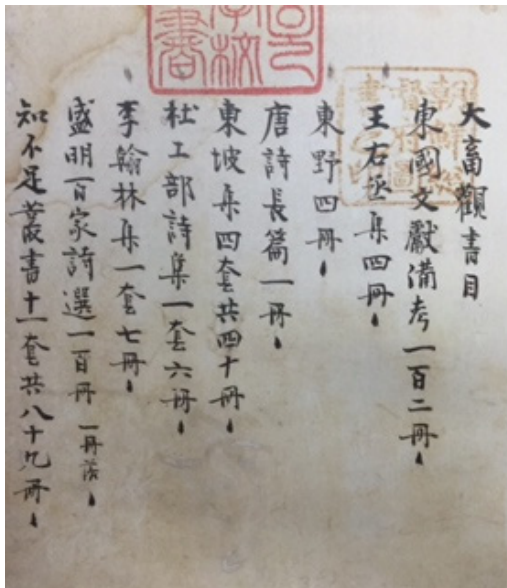
것은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축관은 남아있지 않다. 이는 고종 28년(1891)에 창덕궁에서 중희당 건물이 없어지게 되면서 대축관도 함께 헐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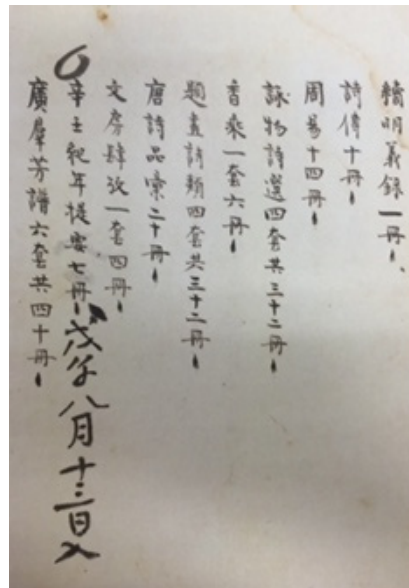
2.2 『大畜觀書目』 分析

2.2.1 『大畜觀書目』의 體制와 作成時期

『대축관서목』은 대축관에 소장된 도서를 대상으로 만든 필사본 소장목록으로, 목록작성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작성자와 편찬 시기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수록된 서적 가운데 간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들로 고려해 볼 때 순조 이후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대축관서목』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소장본(奎11702)⁹⁾을 토대로 하였음을 밝힌다.



<그림 3> 『대축관서목』 1



<그림 4> 『대축관서목』 2

『대축관서목』은 별도의 분류를 하지 않았고, 목록의 기술체제도 매우 간단하다. 목록작성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서명을 기록하고 空格 없이 바로 이어서 책 수를 기록하였다. 간혹 책 수 밑에 한

9) 1冊(58張)의 필사본으로 크기는 25.4 × 18.4cm이다.

칸을 떼어 缺落의 상황을 작은 글씨로 기록한 것이 보이며, 드물게 서명 밑에 “入之”, “入事” 혹은 “戊子八月十三日入”, “入事戊子八月十七日” 등으로 들어온 날짜를 함께 기록한 것도 보인다. 이러한 표기들은 본래 목록의 먹의 농도와는 확연히 달라, 목록을 만든 시점보다 뒤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정조 6년 이후의 무자년은 순조 28년(1828)과 고종 25년(1888)으로, 아마도 이 시점에서 기록이 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 외에는 책의 저자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만으로 목록의 작성시기와 서적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서명의 採記는 卷首題가 아닌 表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몇몇의 서명에서는 誤記된 것들도 발견되었다. 대축관서목이 이렇게 간단한 체제로 작성된 것은 대축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적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2.2 主題分析

『대축관서목』에 기록된 도서의 건수는 모두 466종이다. 466종의 도서를 책의 형태로 나누어 살펴 보면 일반 線裝本 485건, 帖冊 10건, 袖珍本 15건, 屏風 1폭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의 서명 아래 여러 건이 중복되어 기술된 것을 포함하면 모두 498건으로 집계된다. 그 가운데 선장본 519건, 첩책 10건, 수진본 15건, 병풍 1폭으로 나타난다. 또한 諺解本도 45종이 수록되어 있어 언해본의 비율이 전체 장서의 10%가량 됨을 알 수 있다.

총 책 수는 책 수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제외한 것이 1,420책으로, 미상인 것을 합하면 조금 더 많은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98건의 서적의 현존본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규장각에 소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340건이다. 『대축관서목』의 기술 자체가 서명과 책 수만으로 간략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적과 『대축관서목』의 서적이 동일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명과 책 수 장서인 등을 토대로 동일본을 추정하였음을 밝히며, 『대축관서목』에 수록된 서적 중 절반 이상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었을 것이라 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축관서목』은 별다른 분류체제 없이 소장한 도서를 기록한 단순한 형태의 목록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주제 분류를 실시하였다. 498건 가운데 서명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것이나 국내외에 현존하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 8건을 제외한 나머지인 490건의 서적에 대해 동양의 전통적 분류방법인 四分法에 따라¹⁰⁾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10) 『사고전서총목』과 『규장총목』에 사용된 분류 준칙 등을 참고로 함.

<표 1> 『대축관서목』의 주제별 서적 분포

經部(9類)		史部(15類)		子部(16類)		集部(5類)	
總經類	7	正史類	9	總子類	1	總集類	50
易類	6	編年類	9	儒家類	11	科詩文類	1
書類	5	紀事本末類	2	道家類	6	別集類	95
詩類	5	別史類	4	釋家類	2	書簡類	1
禮類	5	雜史類	17	兵家類	4	詩文評類	1
春秋類	8	抄史類	3	農家類	5	未詳	2
四書類	22	史評類	4	醫家類	5		
小學類	15	傳記類	11	天文·算法類	4		
孝經類	1	譜系類	3	術數類	11		
		詔令·奏議類	5	藝術類	10		
		職官類	5	譜錄類	1		
		政法類	35	雜家類	7		
		金石類	1	類書類	18		
		地理類	7	小說類	43		
		書誌類	13	隨筆類	7		
		未詳	1	西學類	1		
				未詳	1		
74(건)		129(건)		137(건)		150(건)	

분류 결과 4부 가운데 집부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부 137건, 사부 129건, 경부 74건 순으로 나타났다.

經部에서는 總經類를 비롯하여 易·書·詩·禮·春秋·四書·小學·孝經類의 9개의 類에 속하는 서적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의 부류 가운데에 사서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학류가 15건으로 사서류와 소학류가 경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경부에는 사서삼경의 유가경전을 비롯해 이들의 주석서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司譯院에서 편찬한 正音類의 서적들도 수록되었다. 소학류에는 『全韻玉篇』이 3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史部는 正史類를 비롯하여 編年·紀事本末·別史·雜史·抄史·史評·傳記 등 15개의 부류의 서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정법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雜史類 17건, 書誌類 13건, 傳記類 11종 등으로 나타났다. 잡사류의 서적들은 대부분 조선에서 편찬된 것들이었고, 전기류에는 송대의 名臣錄과 뛰어난 여성들의 전기인 『열녀전』도 포함되었다. 사부에는 명청시기의 역사관계 서적도 많으나, 조선조의 역사와 정치사를 다룬 저작들도 많이 나타난다. 또한 대축관서목의 사부에는 13종의 목록이 수록된 것이 특징이다. 안타깝게도 서명이 ‘各處書目’으로 처리되어 정확히 어느 서고의 목록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에 궁 안에서 서고의 기능을 하는 곳들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子部는 總子類를 비롯하여 儒家·道家·釋家·兵家·農家·醫家·類書類·小說類 등 16개

의 주제로 나타났는데, 소설류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설류에는 언해본이 집중 소장 되었는데, 중국 명대에 편찬된 한 집안의 애정문제를 소재로 한 『劉氏三代錄』· 송나라 때의 영웅들의 무용담을 담은 『水滸傳』· 명나라 陸人龍이 지은 『型世言』과 같은 한문소설의 언해본이 18건 수록되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한글 소설이 궁중목록에 편입된 것은 정조조 당시에 한글소설이 얼마나 유행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소설류에 이어 유서류가 16건으로 많았다. 유서류에는 당나라 때에 편찬된 『北堂書鈔』와 중국의 『玉海』 등을 모방하여 만든 金攄(1585~?)의 『彙語』 같은 사전류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유가류와 술수류가 11건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선 말기에도 여전히 유학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동시에 점술이나 토속신앙에 관한 서적에 대해서 궁 내부에서도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술수류 서적 가운데는 점을 치는 방법인 六任에 의해 점을 보는 『六任畢法賦』, 『六任課經』, 『六任斷經』, 『六任畢法』과 같은 육임계열 서적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釋家類에 해당되는 서적은 『恩重經』 1종으로 궁궐의 서고에 『은중경』이 소장되어 있는 것은 비록 불경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유교경전인 『孝經』과 비슷하기 때문에 세자의 독서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미 정조가 『은중경』을 頒賜한 사례가 있어 궁에서 『은중경』을 독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集部는 總集·科詩文·別集·書簡·詩文評類의 5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개인의 저술 모음집인 별집류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총집류 50건 순으로 나타났다. 별집류에는 명·청 시기의 저작들 뿐 아니라 조선인의 저작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특히 李穡(1328~1396)의 『牧隱集』, 李齊賢(1287~1367)의 『櫟翁稗說』과 같이 고려시대의 저작들도 수록된 것이 눈에 띈다.

3. 承華樓의 建立과 『承華樓書目』의 作成

3.1 承華樓의 建立과 機能

승화루는 중희당의 동쪽 행랑에 이어진 건물로 1층은 儀宸閣, 2층은 승화루이다. 승화루는 小宙舍樓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지금도 건물이 남아있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승화루 역시 정확한 건립시기는 알 수 없다. 앞서 『궁궐지』에 중희당이 정조 6년(1782)에 건립되었다고 하였으며, 『승정원일기』 정조 7년(1783) 7월 19일조에 승화루에 관련된 기록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승정원일기』에 나타나는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이 승화루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제신들의 눈으로 저 세 글자는 알아볼 수 있겠는가?” 우원(祐源)이 말하기를 “보춘루 중에 한 글자인 ‘춘’은 분간할 수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웃으며, “경들은 보춘루로 보이는가? 나는 다만 승화루로 보이네.” 하였다.¹¹⁾

『승정원일기』에는 단 두 차례 승화루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정조조의 기록이 정조 7년 7월인 점으로 볼 때, 그리고 그 내용이 승화루 편역에 관련된 내용인 만큼 승화루가 중희당이 지어질 정조 6~7년경에 함께 지어졌을 것으로 보여 진다.

형수(徐滢修)가 말하였다. “신이 선조(先朝) 계묘년(1783)에 주서로 있을 때에 마침 가뭄이 들어, 임금께서 승화루에 임하시어 신에게 유문(留門)하여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초경(初更)에 경연에 들어가 오경(五更)이 되어야 물러났습니다. … 저 때의 이야기는 『당후일기』에 전해진다.¹²⁾

정조 3년부터 작성된 규장각의 일기인 『內閣日曆』에는 정조 7년 7월¹³⁾과 순조 10년(1810)에 승화루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으며, 순조 30년(1830) 孝明世子の 『禮葬都監儀軌』에는

승화루에 서연을 열어, 오경 선별하여 마음의 요결을 전하시니, 참된 공부에 힘써 옛 성현을 마주하네.
… (承華樓設講書筵, 五經手選傳心訣, 時敏眞工對聖賢, …)

라고 기록되어, 승화루에서 서연(書筵)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東國輿地備考』에는 “중희당은 동궁의 서연이자 신료를 만나는 곳으로, 옆에 소주합루가 있는데 정조연간에 八分으로 ‘庭衢八荒 胡越一家’ 여덟 자를 써서 문 위에 걸게 하였다.”¹⁴⁾라는 기사가 나온다. 이 ‘정구팔황 호월일가’는 ‘먼 변방도 뜰처럼 가까이하고 거리가 먼 곳도 한집안처럼 여긴다.’는 말로 당시 정조가 다른 뜻을 가진 사람도 포용하고자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승화루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지어졌으며, 중희당과 같은 높이의 기단을 높게 쌓고 박석을 깔았다. 중희당과 연결해 있는 긴 복도건물인 七分序와 중간에 위치한 육각정인 三三窩가 두 공간을 직접 연결하고 있다. 승화루가 소주합루로 불린 것으로 볼 때, 宙舍樓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합루는 창덕궁 후원에 소재한 팔각지붕의 건물로 1층은 규장각 2층은 주합루로, 1층의 규장각 도서를 보관하고 열람하는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이 역대의 어필이나 서화, 도서 등을 보관한 임금의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소주합루로 불리는 승화루는 세자를 위한 강학의 장소이자 도서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1) 『承政院日記』 正祖 7年(1783) 7月 19日.

“上指點承華樓扁額曰, 諸臣眼力, 有能認彼三字者否? 祐源曰, 此是報春樓中一字, 猶可辨其爲春矣. 上笑曰, 卿以爲報春樓耶? 予則但見其爲承華樓也.”

12) 『純祖實錄』 純祖 3年(1803) 12月 23日.

“滢修曰, 臣於先朝癸卯, 待罪堂后, 適值旱災, 自上臨御承華樓, 命臣留門入來, 初更登筵, 五更始退 … 伊時說話俱載堂后日記矣.”

13) “上御承華樓 命同副承旨趙興鎮入侍 上命出御製諸書以示諸臣曰此即四七續編李文純曰四端理發而氣隨之七情氣發而理乘之(후략)”

14) 『東國輿地備考』 卷1 京都 > 宮闕 > 昌慶宮 ‘重熙堂 東宮書筵及引接臣僚之所 憲宗昇遐 傍有小宙舍樓 正宗朝以八分書 庭衢八荒胡越一家八字 揭于堂楣’

3.2 『承華樓書目』 分析

3.2.1 『承華樓書目』의 體制와 記述方式

『승화루서목』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사용된 것은 규장각소장본(奎 9875)¹⁵⁾을 대상으로 하였다.

『승화루서목』의 표지에는 ‘承華樓藏’이란 籤題가 있으며 卷首에 ‘承華樓書目’으로 표기되어 있다. 『승화루서목』의 편찬 체제는 먼저 일반 서적에 대해서는 經類·史類·子類·集類·詩類·文類·筆家類·畫家類·印譜類·叢書類·尺牘類·說家類·兵家類의 13개의 주제로 분류하였고, 서화관련 자료는 다시 그 형태에 따라 書帖·畫帖·書簇·書橫披·書聯·書橫軸·畫簇·畫橫披·畫聯·畫橫軸의 10개의 종류로 분류하여 모두 23개로 분류하였다.



<그림 5> 『승화루서목』

<그림 5>의 記述의 방식을 보면, 한 면에 13行 2段으로 판식을 만들어 남색의 먹으로 찍은 종이에 상단에는 書名을 하단에는 그 책 수를 기록하였다. 각 유목의 시작은 유목의 명칭을 한 칸 내려 쓴 후에 서명은 다음 줄 부터 차례로 기록하였다. 같은 책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 다음 줄에 “又”라고 표기하여 같은 서명을 두 번 표기하는 것을 피하였다.

15) 1冊(51張)에 四周雙邊 匡郭의 크기는 18.6 × 21.6cm이다.

3.2.2 主題分析

동양의 전통적인 분류체제에서는 經·史·子·集의 四部로써 대분류를 한 후에 하위항목인 類를 열거하는 것이 보통이나 『승화루서목』에서는 經·사·자·집의 部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類로 분류한 것이 독특하다. 경류는 전통 사분법 체제의 경부와 같이 사서삼경과 같은 유가경전류를, 사류는 역사서를, 자류는 오로지 老莊과 諸子學派에 대한 것들만을 귀속하였고, 집류에는 오로지 개인의 문집을 위주로 귀속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명칭도 자부나 집부라 하지 않고 자류와 집류로 한정하여 쓴 것으로 추측된다.

『승화루서목』에 기록된 일반서적에 대한 주제와 책 수를 집계해 보면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표 2> 『승화루서목』의 주제별 서적 분포

	部類	種數	件數	總冊數
1	經類	20	26	212
2	史類	6	6	296
3	子類	6	6	47
4	集類	83	84	770
5	詩類	27	27	365
6	文類	18	18	543
7	筆家類	13	14	159
8	畫家類	12	14	112
9	印譜類	9	10	69
10	叢書類	15	15	603
11	尺牘類	5	6	32
12	說家類	52	52	538
13	兵家類	4	4	28
	총계	270(종)	282(건)	3,774(책)

또한 보통의 사분법체계 상으로 보면, 필가류·화가류·인보류·병가류 등은 子部에 해당되는 것들이며, 시류와 문류·척독류·설가류 등은 集部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또한 따로 유(類)를 나누어 열거한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승화루서목』의 분류항목을 가지고 사분법체제로 다시 나누어 보면 다음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 『승화루서목』의 분류항목 재구성

	經部	史部	子部	集部
部類	經類	史類	子類, 筆家類, 畫家類, 叢書類, 印譜類, 兵家類, 說家類	集類, 詩類, 文類, 尺牘類
件數	26	6	115	135

『승화루서목』에는 경류부터 병가류까지 총 13류 270종 282건 3,774책이 수록되었다. 『승화루서목』 또한 『대축관서목』과 마찬가지로 목록 기술 방법이 지극히 간략하여 기록된 서명만으로 현존본을 조사하는 것은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95건으로 약 34%의 승화루 장서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의 유목 가운데 집류에는 83종의 문집이 귀속되었으며 총 책 수 또한 770책으로 가장 많은 양을 보였다. 그러나 분류법상에 있어서는 집류와 시류와 문류의 경우 분류의 항목을 엄격히 나누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나누어 시문류를 귀속하였는데, 엄격히 분류되지 않아 분류법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처사로 보인다. 집류와 시류·문류·척독류·설가류를 모두 합하면 2,200책 이상이 되어, 일반 서적의 60%가량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승화루서목』에서 문집류의 서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류에는 21종 26건의 경전류가 기록되었다. 易·書·詩의 三經과 四書 그리고 奎璧本 四書三經이 위주로 수록되었고, 사서에 등장하는 인물에 관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四書人物備考』도 수록되었다.

사류에는 『명사』를 비롯하여 모두 6종의 史書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중국본으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것은 4종이다.

자류는 본래 제자백가의 류를 귀속하기 위한 부분이나, 경·사·집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을 수록하기도 한다. 『승화루서목』의 자류는 명칭을 자부라 하지 않고 자류라고 한정하고 제자백가의 항목 특히 노장을 중심으로 자류를 이루었다. 총 6건의 서적 가운데 4건이 노장을 다룬 것이며, 총자류에 해당하는 『諸子品節』만이 규장각에 남아있다.

집류는 개인의 문집 혹은 여러 사람의 작품을 모아 만든 총집서의 항목으로, 전체 류 가운데 가장 많은 84건의 저작이 수록되었다. 현재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대략 26종으로 대부분이 명·청 시기의 문인들의 작품으로 나타났다. 드물게 李恒福(1556~1618)의 『白沙集』과 같은 조선인의 문집도 수록되었다.

시류는 개인의 시 혹은 여러 사람의 시를 모아 만든 서적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으로 『승화루서목』에는 27건의 시집이 수록되었다. 그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9종 가량으로 집류와 같이 대부분 명·청 시기의 작품들이며 李德懋(1741~1793)의 『淸脾錄』도 수록되었다.

文類는 개인의 문장 가운데 영화로운 것들을 뽑아 기록한 서적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으로 『승화루서목』의 18건의 문류의 서적 가운데 5건 정도가 현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집류와 시류 그리고 문류는 모두 집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가 엄정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筆家類는 筆法에 관련된 서적을 수록한 항목으로 송대에 편찬된 洪适의 『隸釋』·『隸續』, 劉球的 『隸韻』이나 한나라 때의 예서를 집대성한 婁機의 『漢隸字源』과 같은 서적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런 책들은 대부분 현대 이후의 비석과 비문 등을 토대로 예서의 전문을 기입하거나 문자를 고증하여 편집한 것으로, 주로 문자의 연구에 필요했던 책이다.

畫家類는 畫論이나 화가의 傳記에 관련된 부분으로 원나라 夏文彥이 편집한 『圖繪寶鑑』이나, 명나라 말기 胡正言이 편찬한 『十竹齋畫譜』와 청대의 李漁의 『芥子園畫譜』와 같은 채색 화보집이 수록되었다. 이런 화보들은 화목이 체계적으로 편집되어 있어 그림을 배우는 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였다. 17-18세기에 조선에 유입됨으로써 정선, 심사정, 강세황과 같은 조선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印譜類는 역대의 유명인의 인장을 모아 만든 것으로 『승화루서목』에는 10건의 인보류 서적이 기록되어 있다. 송나라 姜夔의 『集古印譜』 그리고 문방구의 해설서인 蘇易簡의 『文房四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서적들은 문방사보의 원류와 고사, 제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叢書類는 일정한 주제나 체제로 다양한 책을 모아 만들거나, 통일되지 않은 여러 책을 모아 만든 것을 의미한다. 『승화루서목』에는 15건의 총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청나라의 鮑庭博이 편찬한 『知不足齋叢書』로 240책이다. 여기에는 경진과 제자의 주석서를 비롯하여 사학의 고증, 수필·雜記·시화·시문집 등이 수록되어 있다.

尺牘類는 편지글로, 6건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다. 척독류는 편지글로 주로 문집 안에 수록되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서는 편지만을 따로 모아 만든 것으로 보인다.

說家類는 소설가류라고도 하며 주로 세상의 사건이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나 이를 기록한 서적을 말한다. 반고는 『한서』 『예문지』에서 “소설가는 稗官, 즉 민간의 풍속이나 정사를 살피기 위해 가담항설을 모아 기록하는 일을 하던 벼슬아치로부터 발생되었다.”라고 하였다.¹⁶⁾ 과거의 사건이나 일화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고증에 사용되는 자료들도 포함된다. 『승화루서목』에 기록된 설가류는 52건 538책으로, 많은 서적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록된 서적들은 대부분 오늘날 소설에 해당되는 부류의 것들이나 간혹 자부의 농가류나 사부의 편년류에 속하는 것들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

兵家類는 제자백가 중의 하나로 춘추전국시대와 한나라 때에 이르러 많이 출현한 병학가(兵學家)들의 집단으로, 그들의 저작을 모아 만든 것이다. 兵權謀·兵形勢·兵陰陽·兵伎巧 등에 관련된 내용을 가진 저술들이 이에 해당된다. 『승화루서목』에는 명나라 무신인 戚繼光의 『紀爻新書』와 『練兵實記』 등 4건의 병서가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유별로 각각의 서적을 살펴본 결과 『승화루서목』에 수록된 책들은 대부분이 명·청 시기에 편찬된 서적으로 나타나며, 조선의 저작은 문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저자가 밝혀진 서적들을 대상으로 편찬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류 5명, 시류 1명의 저자만이 조선인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중국인의 저작들로 나타난다. 『대축관서목』과 『승화루서목』의 편찬자들은 거의 중국인으로

16) 『漢書』 『藝文志』, “小說家”: 小說家者流, 蓋出於稗官。如淳曰: 『稗音鍛家排。九章』細米爲稗。街談巷說, 其細碎之言也。王者欲知閭巷風俗, 故立稗官使稱說之。今世亦謂偶語爲稗。師古曰: 『稗音穉稗之稗, 不與鍛排同也。稗官, 小官。漢名臣奏唐林請省置吏, 公卿大夫至都官稗官各減什三, 是也。』街談巷語, 道聽塗說者之所造也。孔子曰: 『雖小道, 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 是以君子弗爲也。』師古曰: 『論語載孔子之言。泥, 滯也, 音乃細反。』然亦弗減也。閭里小知者之所及, 亦使綴而不忘。如或一言可采, 此亦芻蕘狂夫之議也。

조선의 궁에서 소장한 책의 대부분이 중국본임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4. 『大畜觀書目』과 『承華樓書目』의 特徵 比較

4.1 體制와 目錄記入 方式

『대축관서목』은 별도의 분류 없이 서술하였으나, 『승화루서목』은 일반 서적에 대해서는 경류·사류·자류·집류 등의 13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서화관련 자료는 다시 그 형태에 따라 서첩·화첩·서족 등 10개의 종류로 분류하여 모두 23개로 분류하였다. 목록기입의 방법은 모두 서명과 책수만을 간략하게 기입하였으나 『대축관서목』은 출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명아래에 날짜를 부기하였다. 그러나 두 목록 모두 저자나 다른 서지 사항은 기록하지 않았다.

4.2 收錄 書籍의 主題와 特徵

『대축관서목』에 기록된 도서의 건수는 모두 466종 498건으로 집계된다. 『승화루서목』에 기록된 도서의 건수는 270종 282건으로 수록된 도서의 양만 보더라도 승화루보다 대축관의 소장 규모가 큼을 알 수 있다. 『대축관서목』에서는 45종의 언해본이 수록되었는데, 언해본 분석한 결과 경부 13건, 사부 11건, 자부 21건, 집부 1건, 미상 1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승화루서목』은 언해본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축관서목』과 『승화루서목』에 모두 수록된 도서는 모두 20종뿐이다. 해당 서적의 서명과 저자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대축관서목』과 『승화루서목』에 중복 수록된 서적목록

번호	書名	著者	分類	
			승화루서목	사분법
1	古詩紀	馮惟訥(明)	詩類	集部 總集類
2	論語	朱熹(宋)集註	經類	經部 四書類
3	大學	朱熹(宋)章句	經類	經部 四書類
4	杜工部集註	杜甫(唐)著；朱鶴齡(清)輯註	集類	集部 別集類
5	陸放翁集	陸游(宋)	集類	集部 別集類
6	孟子	朱熹(宋)集註	經類	經部 四書類
7	明史	張廷玉(清)等奉勅修	史類	史部 正史類
8	明詩綜	朱彝尊(清)錄；張友直(清)緝評	詩類	集部 總集類

번호	書名	著者	分類	
			승화루서목	사분법
9	文苑英華	李昉(宋)等受命編	文類	集部 總集類
10	書傳	胡廣(明)等受命編	經類	經部 書類
11	詩傳	胡廣(明)等受命編	經類	經部 詩類
12	詠物詩選	佩文齋撰(淸)	詩類	集部 總集類
13	王右丞集	王維(唐)著; 趙殿成(淸)箋註	集類	集部 別集類
14	元百家詩選	未詳	詩類	集部 總集類
15	周易	胡廣(明)等受命編	經類	經部 易類
16	中庸	朱熹(宋)章句	經類	經部 四書類
17	知不足齋叢書	鮑廷博(淸)受命編	叢書類	集部 別集類
18	春秋	左丘明(周)撰	經類	經部 春秋類
19	漢隸字源	婁機(宋)撰	筆家類	經部 小學類
20	皇淸職貢圖	溥桓(淸)等受命撰; 永璿(淸)等校刊	畫家類	史部 地理類

경부에 역류 1종, 서류 1종, 시류 1종, 춘추류 1종, 사서류 4종, 소학류 1종, 사부에 정사류 1종, 지리류 1종, 집부에 총집류 5종, 별집류 4종으로 나타났다. 경부의 서적과 집부의 서적이 동일하게 9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문집의 생산과 수요가 많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축관서목』과 『승화루서목』에 수록된 서적의 주제 분포를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축관서목』의 경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498건 가운데 서명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것이나 국내외에 현존하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 8건을 제외한 나머지인 490건의 서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5> 『대축관서목』과 『승화루서목』의 주제 분포

部類	大畜觀書目		承華樓書目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經部	74	15.1	26	9.2
史部	129	26.3	6	2.1
子部	137	28.0	115	40.8
集部	150	30.6	135	47.9
총계	490	100	282	100

『대축관서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제는 문집류로 약 30%를 차지하였고, 자부(28.0%)·사부(26.3%)·경부(15.1%) 순으로 경부의 서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화루서목』의 경우에는 문집류가 47.9%로 전체 서적 중에 반에 해당하였고, 『대축관서목』과는 대조적으로 사부의 서적이 2%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승화루서목』은 집부와 자부의 서적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대축관서목』은 집부 외의 서적들이 어느 정도 고르게 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축관서목』과 『승화루서목』의 수록 도서를 합쳐서 살펴보면, 경부가 100건(약 13%) 사부 135건(약 17%), 자부 252건(약 33%), 집부 285건(약 37%)으로 나타난다. 창덕궁의 동궁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서적들의 주제가 대략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제도인 書筵에서 쓰인 책들이 주로 유교경전과 史書였지만, 조선 후기 동궁에서는 한글본 소설류나 문집류가 상당수 소장되어 활발히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結 論

창덕궁은 조선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궁궐로, 창덕궁의 각처에는 많은 서고들이 존재했다. 특히 왕세자가 거처하는 동궁에는 七分書 · 三三窩 · 承華樓 · 大畜觀과 같은 서고가 건립되어 현존하고 있다. 그 중 『승화루서목』이나 『대축관서목』과 같이 소장된 서적을 바탕으로 만든 소장목록이 전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덕궁의 동궁에 속한 대축관과 승화루에서 작성된 목록을 비교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두 건물의 정확한 건립시기가 기록된 자료는 없었으나, 대축관은 정조 6~8년(1782~1784)에, 승화루는 정조 6~7년(1782~1783)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두 서고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축관의 경우 주로 서적을 보관하는 수장고의 역할이 좀 더 강했다고 여겨지며, 승화루의 경우에는 서적을 보관하는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세자의 강학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목록을 기술한 방법을 살펴보면, 두 목록 모두 매우 간단한 기술 방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대축관서목』은 서명을 기록하고 이어서 책 수를 기록하였다. 간혹 책 수 밑에 한 칸을 떼어 決落의 상황을 작은 글씨로 기록한 것이 보이며, 드물게 서명 밑에 “戊子八月十三日入”, “入事 戊子八月十七日” 등으로 들어온 날짜를 함께 기록한 것도 보인다. 『승화루서목』의 경우 한 면에 13行 2段으로 판식을 만들어 찍은 종이에 상단에는 書名을 하단에는 그 책 수를 기록하였다. 각 유목의 시작은 유목의 명칭을 한 칸 내려 쓴 후에 서명은 다음 줄부터 차례로 기록하였다.

셋째, 두 목록에 수록된 서적의 주제를 비교해 본 결과 『대축관서목』에는 문집류와 역사 관계 자료가 많았고, 언해본 소설류가 다수 수록되었음이 나타났다. 반면 『승화루서목』의 경우 문집류와 자부에 속하는 서적들이 많았고, 언해본은 수록되지 않았다. 『대축관서목』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제는 문집류로 약 31%를 차지하였고, 자부(28.0%) · 사부(26.3%) · 경부(15.1%) 순으로 경부의 서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화루서목』의 경우에는 문집류가 전체 서적 중에 약 48%에 해당되어 그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대축관서목』과는 대조적으로 사부의 서적이

2%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승화루에는 문집류와 자부의 성격을 가진 서적들이 주를 이루었고, 대축관에는 승화루에 비해서 四部의 서적이 좀 더 고르게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을 토대로 볼 때 승화루와 대축관은 동일한 시기에 건립되었고, 승화루는 학습과 서적 보관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면 대축관은 서적 보관의 기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각 서고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책의 주제를 보면, 두 서고 모두 문집류의 비중이 높았으며 『대축관서목』에는 『유씨삼대록』·『수호전』 등의 당시 유행했던 한글 소설류가 18종 포함되어 있어, 정조조 궁궐 내에서도 한글 소설류가 상당수 보유, 이용되어 왔음을 잘 보여준다.

<참고문헌>

『宮闕志』(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56-나164)

『東闕圖』

『承政院日記』

『東國輿地備考』(국립중앙도서관, 古2710-2-137)

『禮葬都監儀軌』(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

『朝鮮王朝實錄』

『漢書』

강순애. “奎章閣의 圖書編撰 刊印 및 流通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姜惠英. “朝鮮朝 正祖의 書籍 蒐集 政策에 관한 연구: 奎章閣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1.

南權熙. “奎章閣 西庫의 書目과 藏書 變遷 分析: 現存 書目を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83.

南權熙. “承華樓書目考.” 『사회과학연구』 3호(1987). 63-86.

白麟. “奎章閣藏書에 對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2.

안미경. “藏書閣 자료의 현황과 특징.” 『古典籍』 제2집(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2006). 96-108.

이재준. “장서각 소장 내사본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李杏淑. “奎章閣藏書의 構成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3.

정유나. “창덕궁에 나타난 매개공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市立大學校. 2008.

최종덕. 『조선의 참 궁궐 창덕궁』. 서울: 놀와, 2006.

풍지혜. “정조대 궁중 서적보관처와 서적 관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3.